



교회소식 & 이웃소식

함께여는교회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척자들, 촛불 교회, 좋은 의자,
그리스 이슬람 난민 선교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운영위원장	표승범
예배팀장	-
사회선교팀장	노희창
교육팀장	-
생활팀장	김현숙
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홍
나눔미대표	박상현
청년회장	한의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선의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방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시스템이 열악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김동훈)
4. 예배 후, 수련회 평가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승범)
5. 교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7월의 영화는 '두 교황'(넷플릭스)입니다. (김동훈)
7. 촛불교회는 8월 한 달 간 휴지기를 갖습니다. (노희창)
8.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용희)

함께 여는 이야기

전국 장애인 연대 활동가 이규식 이야기(3)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왔는데 그때 우리 집에 계단이 많았다. 반 층정도 올라가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동생이 1층에서 맨날 업고 3층 집 앞까지 왔다갔다 해줬다.

그렇게 집밖에 나가서 동네한바퀴 빙빙 돌다가 불빛이보여서 가보니 정립회관이였다. 안에 나 같은 장애인들이 많아서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3층에 박선생님이 있었다. 그때 박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가보니 야학이 뭔지 설명해주었다. 그때부터 야학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게 되었다. 그때 박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한참 야학에 다니다가 에바다 사건이 터져서 집회를 처음 가봤다. 그때 운동맛보기가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오이도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엔 내가 해화역에서 리프트 타다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이동권연대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서울역 철로 안에 들어갔고 시청철로 안에 들어가서 잡혀서 조사받았고 조사 받을 땐 48시간동안 못나왔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에도 시청사회복지과를 점거했고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점거했다. 수도없이 도로를 막고 그 덕분에 장애인콜택시도 생기고 그 덕분에 저상 버스도 생겼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도로를 막고 점거했다는 이유로 죄를 지었다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 주에 계속

이규식 활동가 SNS에서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사 회: 표 승 범	
침 목 의 기 도	다 함 께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주 일 학 교 말 씀	마 14:13~21	사 회 자
주 일 학 교 말 씀 나 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김 덕
찬 양 의 시 간	사 회 자	
공 동 기 도	사 회 자	
함께여는 말씀	눅21장 1-4절	사 회 자
말 씀 나 눔	구차한 가운데.....	채 은 동
환영/알리는말씀	담 당 자	
송 영 과 축 도	다 함 께	

예배위원

	8월 7일	8월 14일	8월 21일	8월 28일
예배인도	노희창	김현숙	안용희	박상현
대표기도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
말씀나눔	김동훈	정모세	김동훈	표승범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